

일본의 기업

1. 일본의 기업

일본 기업이라고 말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 흔히들 자동차로 유명한 혼다, 도요타, 혹은 디지털 사업으로 유명한 닌텐도, 소니, 니콘, 혹은 의류 매장으로 유명한 유니클로 같은것이 있을것이다. 이들 대부분의 로고 이미지는 일본의 국기와 비슷하게 흰 바탕에 빨간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본 기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주관적으로 '장인정신'과 '잇쇼켄메이'가 떠오른다. 일본 특유의 한 제품에 열심히 공을 들이는 것과 나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것, 보통 이런생각이 든다. 실제로 일본의 기업 제품에는 하자가 잘 없는것으로 유명하며 기업 사원 이직률이 적고, 100~200년 장수하는 기업의 수가 세계 최대인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일본의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1-1. 일본의 3대 재벌 기업

일본에서도 한국의 삼성,현대,SK 등과 같은 재벌기업 그룹이 있다. 그중에서도 현대에서 유명한것은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그룹이 대표적이다. 각각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을까.

우선 미쓰비시 그룹은 1870년에 설립된 3대 재벌 기업 그룹중 하나이다. 미쓰비시는 이른바 '조직의 미쓰비시'라 일컬어진다. 창업자는 토사 번 출신의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彌太郎)다. 로고는 3개의 마름모로 미쓰비시의 한자 석삼(三), 식물 마름 릉(菱)의 앞사귀를 그대로 로고로 만들어냈다. 세 개의 다이아몬드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창업자 이와사키 야타로의 출신 번인 토사 번의 번주였던 야마우치 집안의 가몬 三つ柏紋(세 장의 떡갈나무 앞사귀) 문양 배치를 이와사키 집안의 가몬과 섞어 만든 것이다. 3대 재벌 중 가장 대외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기도 하다. 스미토모나 미쓰이가 소비재 계열사에 그룹명을 쓰는 경우가 없는 반면, 미쓰비시에 소속된 기업들은 공통된 3가지 강령을 공유하는 등, 기업 간의 유대관계가 깊고 따라서 미쓰비시 브랜드를 강하게 어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관련 기업으로는 기린 홀딩스, 니콘 등이 있다.

두번째로 1673년에설립된 미쓰이 그룹이다. 태평양 전쟁 전 3대 재벌의 1위였던 미쓰이 재벌을 이은 기업 집단이다. 미쓰이 이름만으로는 외국에서 지명도가 높은 기업이 적으나, 산하에 일본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인 토요타를 포함하여, 도시바, 도레이, 후지필름 등의 유명 기업이 포진하고 있다. 미쓰이 그룹은 에도 시대 거상인

미쓰이 다카토시(三井高利)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1673년** 교토와 에도에 에치고야라는 포목점을 열고 당시로는 파격적인 정찰제와 현금 거래를 내세웠다. 이걸 가리켜 일본어로 겐킨카케네나시라 하는데 오로지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는 대신, 다른 상점보다 가격을 싸게 하여 팔았다. 또 비가 오면 고객에게 회사 이름이 새겨진 우산을 빌려주는 등 현대식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면서 성장을 거듭했다. 이후 메이지 시대에 은행, 무역, 광업 등에 진출하며 세력을 넓혀나가며 그룹의 면모를 갖추었고, 미쓰이 가문은 그룹의 경영권을 쥐고 일본 최대 재벌로 성장했다. 마지막으로 **1590년**에 설립된 스미토모 그룹이다. 미쓰비시, 미쓰이와 더불어 일본 전진을 이끌었던 **3대 재벌 기업 집단** 중 하나이다. 다른 재벌과 같이 **2차대전** 후 해체되었으나, 이후 스미토모은행, 스미토모금속 등을 중심으로 중역 모임이 구성되어 현재에 이른다. 업종 구성상 소비재가 적어셋 중에 가장 대외 인지도가 낮지만, 생각지도 못한 기업들이 속해있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는 스미토모 마사토모로 에치젠 출신이며 원래 승려였으나 직업에 큰 애정을 가지지 않았던 스미토모는 **1630년대** 교토의 한 사찰에 책과 약을 파는 상점 후지야(富士屋)를 세우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스미토모 가문은 오사카로 본거지를 옮기고 구리 제련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제련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에도시대(**1603~1867**) 일본의 제련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1868~1912**) 초반까지 직접 구리광산 개발을 하여 관련 사업들을 키우며 성장하기 시작하며 기업의 틀을 갖추가기 시작한다. 일찍부터 도쿄에 본사를 둔 미쓰이·미쓰비시 (창업지는 오사카) 두 그룹에 비해 스미토모 그룹은 오랫동안 오사카의 땅에 구애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오사카에 본사를 둔 스미토모 그룹의 기업은 많다. 오사카시 중에서도 오구의 선착장·근처는 스미토모 빌딩을 중심으로 스미토모 그룹의 각사의 본사와 오사카의 거점이 모여 있기 때문에 "스미토모 마을"로 불리는. 스미토모 그룹에 있어서는, 적어도 고도 성장기까지 명실공히 오사카에 그 중심을 두고 있던 기업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며, "스미토모"라고 말하면 즉시 오사카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긴키 지방에서는 특히 연장자 층을 중심으로 지금 가지고 또한 미쓰이·미쓰비시 두 그룹보다 스미토모 그룹의 존재·사회적 상태를 더 한층 높게 평가하는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스미토모 그룹의 오사카에서의 존재감은 건재 할 수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미디어

일본의 미디어중에서도 특히 방송국과,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다뤄보려고한다. 특히 일본 방송사중 유명한 재경 텔레비전 6사 (**NHK**, **TBS** 테레비, 닛폰 테레비, 후지 테레비, 테레비 아사히, **TV TOKYO**)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첫번째로 **NHK**(일본방송협회) 이다. 일본의 공영방송. 상업광고를 일절 편성하지 않고 수신료를 꽤 비싸게 받는 특성에다가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면에 있어서 보수적인 특징을 드러내지만 일본은 전국에 계열 방송국을 갖추고 있는 민방이 없기 때문에 **NHK**가 사실상의 유일한 전국 방송이자 최대, 최고 규모의 방송국이다. 공영 방송이며, 국내용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수신료를 재원으로 한 독립 재산제를 취하고있다. 이것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국비를 재원으로하는 국영 방송 과 광고 (광고 메시지)를 방송 광고료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하는 민간 방송 과 구별되는 것이다. 신속, 정확한 방송으로 세계 재난방송의 교과서로 불린다. **NHK**는 일본 재해대책기본법에서 보도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정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상청과 핫라인이 있어, 지진 및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는 순간 속보 자막을 내보내고 특보 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 핫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특보 원고를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전국 각지에 설치된 **500여대**의

무인카메라가 촬영한 지진 발생 순간이나 실시간 현장 영상이 자동으로 송출된다. 또한 유명 프로그램으로 홍백가합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내 최다 시청률을 기록할만큼 연말 프로그램중에서도 거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TBS** 텔레비이다. **TBS** 홀딩스 의 자회사이며, 관동 광역권 을 방송 대상 지역으로 하는 방송사이다. 도쿄에서 유일한 **TV**-라디오 경영 민영방송이었지만, **2001년 TV** 제작 부문과 함께 도쿄방송 홀딩스 자회사로 분사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라디오 방송으로는 **TBS**라디오에서 담당하고 있다. 드라마는 인기도 높고, 작품성에 대한 평가 또한 좋다. 아예 "**드라마는 TBS**"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유명할 정도이다. 주로 기무라 타쿠야의 드라마도 나왔으며, 한국에서 인지도 있는 드라마는 닥터진, 꽃보다 남자등도 있다.

3번째로 닛폰 텔레비이다. 일본 간토 지역의 대표적인 민영 방송사 중 하나로, **1952년 7월 31일** 텔레비전 방송 예비 면허 취득을 시작으로(**NHK**에 이은 **2번째**) 이듬해인 **1953년 8월 28일**에 개국하였다. 닛폰 텔레비는 일본 **TV** 업계에서 새로운 방송 매체 · 방송 형식을 적극적으로 빨리 도입하고, 도입하자마자 그 매체를 이용한 방송을 정착시켜 온 것으로 유명하다. 방송 면허 취득 및 민간 자본에 의한 개국 본 방송은 물론, 광고 방송, 컬러 방송, 음성 다중 방송 (세계 최초), 와이드 클리어 비전 방송, 서양화 의 일본어 더빙 방송, **L** 자형 화면, 데이터 방송, **DMB** 방송 자체 프로그램 방송 (비 동시 방송), **3D** 입체 영상으로 생방송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방송중인 드라마 전편 무료 배달도 일본 민간 방송에서는 닛폰 텔레비가 처음이었다.

4번째로 후지 텔레비이다.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방을 가청권역으로 하는 민영 방송사로 설립 과정에서 닛폰 방송, 분카 방송을 주체로 도호, 쇼치쿠, 다이에이 영화사 기업이 참여하였고 **1957년 11월 18일**에 창립되었으며, **1959년 3월 1일**에 개국했다. 방송국 내 사옥 건축 시스템이 상당히 발전 돼 있어서 방송국 건축에 자주 쓰이기도 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뉴스 속보 방송 사고 사건 여파로 후지 텔레비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며 이후 친한적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시위 사건도 벌어진다. 현재는 **6사** 방송사중 시청률이 가장 낮게 나오고 있다.

5번째로 텔레비 아사히이다. 는 아사히 홀딩스 의 자회사이며, 관동 광역권 을 방송 대상 지역 으로 **TV** 방송 사업 기관이다. 오사카에 본사를 둔 아사히 신문을 모회사로 하는 아사히신문 그룹의 일원이기도 하다. **1984년**에 미국 **CNN**과 제휴하여 이듬해 **CNN**의 화면을 인용해 방송하는 프로그램과 프라임타임에 대형 뉴스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보도에 강한 방송국 이라는 이미지를 널리 심는 데 성공했다.

6번째로 TV TOKYO 이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칸토지방을 가청권역으로 하는 민영 방송사이다. 사회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도, 도쿄를 포함 **TXN** 계열 각 국은 긴급 방송 (보도 특별 프로그램)이나 선거 속보 (선거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거나 방송도 타국보다 시작이 지연되거나 짧은 시간 인 것들이 많이 있다. 올림픽 유치 성공 발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국가의 경사나 위기시에도 정규 프로그램 방송을 유지한다. 허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즉각 대응이 빠르는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파산, **2010년** 유로존 위기 등의 중요한 경제 사건 보도는 다른 방송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뉴스를 내보냈다.

미디어중 일본 애니메이션에 속하는, 지브리 스튜디오다. **1985년 6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사명인 지브리(**ghibli**)는 '사하라 사막에 부는 열풍(熱風)'을 가리키는 이탈리아어로 리비아의 아랍어 방언에서 온 외래어(이탈리아 입장에서)이다. 정확한 발음은 기브리가 맞으나, 현재 지브리 명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하면 떠오르는 기업으로서,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수입 TOP 10 중에서 6개를 차지하고 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버랑 위의 포뇨, 원령공주, 마루 밑 아리에티, 바람이 불면) 또한 자신들의 작품을 이용하여 테마파크나 미술관 등 관광 사업에도 이용하고 있으며 테마파크는 곧 개장될 예정이다.

출저

일본 위키피디아 :

<https://ja.wikipedia.org/wiki/%E3%83%A1%E3%82%A4%E3%83%B3%E3%83%9A%E3%83%BC%E3%82%B8>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

야후 재팬 :

<https://www.yahoo.co.jp/>